



15일 나주시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남자일반부 제외경기에서 출전 선수들이 메달을 향한 힘찬 질주를 펼치고 있다.

/나주=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산강따라 '은륜의 질주' 시작됐다

나주서 대통령기 사이클 개막... 85개팀 1,000여명 열전 7일 돌입

배꽃이 만발한 나주에서 자전거 대축제가 열렸다.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경기대회가 15일 나주 벨로드롬에서 개막, 열전 7일에 돌입했다. 대한사이클 연맹과 전남사이클 연맹 주관, 나주시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85개팀 1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남녀 일반, 고등, 중등부 등 6개 부별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대회에 남자일반부는 강진군청·대한지적공사·한국체대 등 9개팀이 참가하고 여자일반부는 나주시청·천안시청·국민체육진흥공단·삼양사 등 10개팀이 참가했다. 남고부는 금성고·전라고·광주정보고·부산체고 등 15개팀이 기량을 겨루고 여고부는 전남미용고·목천고·동산고·서울체고 등 12팀이 출전했다. 또한 남중부는 금성중·중흥중·동화중·송파중·합덕중 등 가장 많은 21개팀이 출전했으며 여중부는 나주다시중·덕산중·전북체육중·음성여중·대전서중 등 18개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또 스피린트·200m 기록경기·500m 독주·1km 독주·경륜경기·단체스프린트·1km 개인추발·2km 개인추발·3km 개인추발 등 9개 세부종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1984년 창설된 이번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의 사이클대회로 꼽힌다. 대한사이클 연맹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올림픽 및 아시아대회에서의 훌륭한 성과와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선수 저변확대와 우수 신인 발굴, 경기 운영 능력배양 등 한국 사이클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를 주관한 전남사이클연맹의 나원주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4대 중 하나인 영산강변을 따라,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를 통과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신기특이 쏟아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개막식 참가한 구 자 열 대한사이클연맹회장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를 나주에서 10년 연속 개최해 온 전남사이클의 힘과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사이클 발전을 위한 전남연맹의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10년 연속 나주 개최 전남연맹 저력 돋보여"

구자열(56·LS회장) 대한사이클 연맹 회장이 15일 나주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경기 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제24대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에 취임한 구 회장은 "사이클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외국인 지도자 영입이나 전지훈련 등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국고지원금을 포함 연간 16억원 이상의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일본이 올림픽대회 사이클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반드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중거리 부문에 집중 투자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금메달 도전

전남 사이클 발전을 위한 연맹의 지원 계획에 대해 구 회장은 "호남 지역의 사이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구 회장은 "사이클 인구가 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전거는 환경·교통·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웰빙 스포츠이다"고 강조하면서 "골퍼라면 누구든 대회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싶어하듯 자전거도 동호인들이 엘리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대회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웰빙스포츠

구 회장은 또 "생활체육과 함께하는 사이클 대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역대 회장 중 자전거 타는 회장이 나 뿐이다"고 농담할 정도로 사이클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 회장은 지난 2002년 자전거를 타고 9일 동안 3천3백km 고지인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650km를 완주하기도 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읍시청 "첫승이야"

핸드볼슈퍼리그 1차대회

정읍시청이 다이소 2009 핸드볼슈퍼리그 1차 대회에서 실업팀을 상대로 첫 승을 올렸다. 작년에 창단된 정읍시청은 15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풀리그에서 조선영(7골)을 앞세워 경남개발공사를 22-21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신생팀이라 노련한 선수가 없는 정읍시청은 지난 3월 끝난 2009 핸드볼콘잔치에서 대학팀을 이기기는 했지만 실업팀에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읍시청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21-21로 맞서다 5초를 남기고 레프트 윙 조선영이 경남개발공사 수비수를 속이고 결승골을 터뜨렸다. 정읍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2패 뒤 1승을 기록했고 경남개발공사는 3패를 당했다. 한편 삼척시청은 용인시청을 26-21, 벽산건설은 대구시청을 28-24로 각각 꺾고 3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부상병동 될라" 떨고있는 KIA

채종범·이용규이어 롯데전 나지안 펜스 충돌에 한때 긴장... "자나깨나 부상 조심" 특명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구름손의 완벽투로 롯데에 안봉송을 거두고 2연승을 달린 14일, 사직구장 3루에 자리 잡은 KIA 타이거즈의 덕아웃이 순간 얼어 붙었다. 2회말 이대호의 파울 타구를 잡으려고 질주를 하던 좌익수 나지안이 펜스와 부딪힌 후 그대로 주저 앉은 것이다. 나지안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서 드러눕자 김중모 수석코치와 장세홍 트레이너 등이 급히 외야로 뛰어나갔고, 덕아웃의 조범현 감독과 선수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야를 주시하는 등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앞서 채종범, 이용규 두 명의 외야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오른 만큼 KIA에게는 간담이 서늘한 순간이었다. 들것까지 경기장에 들어갔지만 잠시 후 나지안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KIA 코칭스

태프와 팬들은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나지안은 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계속 그라운드를 누빈 뒤 8회말 수비 때 최경환과 교체됐다. 올 시즌 어느 팀 못지 않은 외야 전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받았던 KIA는 채종범에 이어 이용규가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하면서 외야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체력적인 부분도 KIA의 고민이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이 시즌 전 병원 신세를 졌고, 외야를 지휘하고 있는 이종범의 나이도 감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야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채종범, 이용규의 복귀 시기는 미지수지만 두 선수의 마음만큼은 이미 그라운드에 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왼쪽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던 채종범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상태가 심각해 올 시즌을 접었다. 하지만 채종범은 15일 병원 재활센터에서 복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채종범은 "TV를 통해 팀을 응원하고 있다"며 "이용규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4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용규는 1주일 정도 반깁스를 한 뒤 통 김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용규는 지난 7일 SK 와이번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수비 중 펜스에 부딪히면서 복숭아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아 지난 8일 골절부위에 대한 핀 고정 수술을 받았다. 이용규는 고향인 서울에 머물며 4주기량 통깁스를 한 채 수술 부위를 고정할 뒤 재활에 나서게 된다. 재활까지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용규의 마음은 바쁘다. 퇴원날인 14일에도 TV 중계를 통해 KIA의 경기를 지켜본 이용규는 "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지만 될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일단 사고로 무릎경리장 야구장 외야에 소금까지 뿌렸던 KIA는 '자나깨나 부상 조심'을 외치며 올 시즌 행군을 이어나가야 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표도르 24일 방한

'격투기 황제' 표도르 에펠리아네펠코(33·러시아)가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종합격투기 M-1 한국 내 사업권을 가진 브이큐브출판사는 15일 "표도르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나서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도르는 방한 기간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표도르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허락 없이 풀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는 이유로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표도르는 또 25일 서울에서 소속 팀 레드데블의 바디 빌딩 스테인 회장과 함께 회견을 열고 다음 M-1 대회 출전 일정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 사이클 세계 질주

구 회장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늘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연맹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